東亞日報
夕刊
六月二日(水)

不老丸

續刊에臨하야

一

本報는 今日로써 續刊케 되엇읍니다. 滿天下兄弟姉妹가 一家인양 [illegible] 이 本報를 오늘에야 다시 귀에익은 [illegible]소리로 여러분을 찾게되엇읍니다. 回顧컨대 本報는 昨年 八月二十七日 發行停止의 處分을 當하고 至今 滿九個月 六日동안 [illegible] 오니 여러분은 그얼마나 寂寞하고 지루하엿으리까. 이 九個月六日間 이라는것은 [illegible] 歷史에잇어서는 [illegible] 瞬間이라 하겟으되 우리社會의 [illegible]과 不可分의 [illegible] 本報의 存在[illegible] 다시금 [illegible] 本報의 一日의 [illegible]도 三秋와같은 지루의 느낌을 여러분에게 드렷으리던 하물며 그 너무도 長久한 [illegible] 이엇음에 [illegible] 다맛 [illegible] 뿐입니다. 더욱이 社會의 [illegible] 나날이 [illegible] 이때에잇어서리까. 이제 當局의 [illegible] 依하야 다시 發行하게 되엇으니 續刊第一日에 잇어서의 우리의 胸中에는 實로 [illegible]로 다할수없는 [illegible]가 [illegible]하고있읍니다.

二

[illegible] 一週하엿읍니다. 때는 그자최는 巨大한 [illegible] 남겻읍니다. 本報의 [illegible] 아니엇지마는 今番에 받은 [illegible] 입은 [illegible] 物質的損失외 [illegible] 시 말할것도없거니와 [illegible] 더욱 컷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本報의 [illegible] 우리에게 [illegible] 반타는것을 [illegible] 本報가 [illegible] 받고잇다고서 여기서 우리가 [illegible] 아닙니다. 現在 [illegible] 巨大함수록 우리여 [illegible] 努力이 잇어야 할것이

[illegible] 오히려 [illegible] 어야할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illegible] 生氣를 다시 가다듬고 더욱 [illegible]하려합니다. 그리하야 滿天下兄弟姉妹의 本[illegible] 어그러짐이 없도록 [illegible] 아니라 一步를 더나아가 本報로 하여금 滿天下兄弟姉妹의 것이 되게하는 그 [illegible] 忠實히 履行하기 爲하야 [illegible] 專心一意로 努力하려합니다.

三

그러나 돌이켜생각하노니 本報의 [illegible]에잇어서는 本報[illegible] 힘도컷어려니와 더욱 [illegible]하고 가장根本的인 要素는 滿天下兄弟姉妹의 [illegible]한 同情과 [illegible] 느끼고잇읍니다. 여러분의 同情과 [illegible] 으로삼어 그 [illegible] 잇을수 잇을것이 오 그 [illegible] 어 [illegible] 復興의 [illegible]에 到達할수잇을 것입니다. [illegible] 妹여 이미 여러분의 [illegible] 本報는 [illegible] 되엇고 또한 여러분의 熱情的인 [illegible] 이제까지 [illegible] 것이니 이 「여러분의 [illegible] 여러분이 [illegible] 人의 [illegible] 여기시기 [illegible] 本報更生의 第一日에 [illegible] 우리는 다시금 社會各方面의 [illegible] 愛護를 期待하며 [illegible] 하는바입니다.

永井氏에게 入閣交涉

【東京電話同盟】近衛公秘書官 牛場友彦氏는 一日午後十一時十五分 民政黨의 永井柳太郞氏를 千駄谷의 自邸로 訪問하고 近衛公의 使者로서 永井氏의 入閣을 交涉하엿다.

近衛內閣의有力候補

軍部大臣은留任、政、民에서各一名

二日中名簿捧呈은困難?

【東京電話同盟】一日組閣의 大命을 拜受한 近衛公은 國內의 對立相剋을 排除하고 各界의 人材를 網羅하야 [illegible] 根本方針으로 決定하고 가장 困難視되는 軍部大臣의 留任에 [illegible] 杉山陸相, 米內海相의 留任決定을 보게되엇다

【東京電話同盟】二日正午까지에 進捗한 組閣工作에 依하야 決定한 候補는 如左하다

▲確定
首相 公爵 近衛文麿
陸相(留任) 陸軍大將 杉山元
海相(留任) 海軍大將 米內光政
法相(留任) 鹽野季彦

▲入閣確定
遞相(豫定) 永井柳太郞
鐵相(豫定) 中島知久平

▲入閣交涉中
外相 廣田弘毅
文相 安井英二

▲其他有力候補
農相 石黑忠篤 又는 有馬賴寧
藏相 平生釟三郞
拓相 大谷尊由
內相、商相 未定

【東京電話同盟】內務大臣은 元藏相馬場鍈一氏 文部大臣은 大阪府知事安井英二氏로 決定한 旨를 二日午後一時五十五分 組閣本部에서 正式發表하엿다

【東京電話同盟】[illegible] 近衛內閣의 組閣은 對軍部工作에잇어 먼저成功하고 出發은 매우順調로운바가잇다 다음政黨方面關係에 잇어서는 林內閣의 失敗에 鑑하야 擧國一致의 實을 擧하기 爲하야 政黨側으로부터도 閣僚를 入閣시키기로되엇는데 右는 政黨代表로서가 아니라 人材本位로서 政民兩黨에서 各一名을 拔擢할方針인데 政友會의 中島知久平、民政黨의 永井柳太郞兩氏의 內意를떠보앗다 [illegible] 近衛公은 擧國一致强力內閣實現의 見地에서 極히 愼重한態度를 가지고잇으므로 二日中에 閣員名簿를 捧呈하야 親任式을 擧行하기는 困難[illegible] 政黨、財界、軍部는 一致하야 近衛內閣의成立을 待望하고잇으므로 組閣은 [illegible] 順調로 進行하야 三日早朝 親任式을 擧行하게될것이다

近衛內閣支持로 政友態度決定

中島知久平氏入閣?

[illegible]

組閣本部委員 後藤[illegible] 談

【東京電話同盟】[illegible]

陸相의希望은 國體明徵、國防充實等

【東京電話同盟】杉山陸相은 一[illegible] 國防充實 [illegible] 國民體力의 [illegible] 入閣에際하야 希望을 [illegible] 그內容은 左와如히 觀測된다
一、國體의明徵
二、國防의充實
三、國民生活의安定
四、政治의刷新
그리고 第二項의 國防의 [illegible] 生産力의 [illegible]

伊藤公以來의 青年宰相出現

◇……近衛公의爲人

【東京電話同盟】二·二六事件直後 [illegible] 近衛文麿公은 [illegible] 四十七 [illegible]

[illegible] 大臣이다 歷代首相中 [illegible] 伊藤博文公이 年齡四十四로 [illegible] 大命을 拜受하엿든 若年의 記錄이다. 公은 누구나아는 藤原 [illegible] 大正七年 [illegible] 昭和六年 [illegible] 貴族院議長에 就任하엿든데 [illegible]

安全地帶案에 蘇聯斷乎反對

歐洲政局重大危機에

【마드리드一日發同盟】[illegible] 不干涉委員會 [illegible]

歐洲의不和工作따 不干涉事業頓挫

獨艦砲擊波紋

英佛兩國海軍當局對策協議

獨逸不出席宣明으로

[illegible]

獨逸政府發表

【伯林三十一日發同盟】[illegible]

李中行院 盧山에移轉

【上海二十一日發同盟】[illegible]

英軍艦商船이 人民戰線空爆?

【런던一日發同盟】[illegible]

國際軍縮 幹部會

【제네바三十一日發同盟】[illegible]

日中連絡飛行 國府停止命令

【南京三日發同盟】[illegible]

近衛公組閣本部에

【東京電話同盟】[illegible]

橫說竪說

▼讀者여러분! [illegible]

社告

讀者 本報에서 日章旗마크抹消事件을 惹起하야 當局의 忌諱에 觸하게된것은 實로 恐縮不堪하는 바이다. 이제 當局으로부터 發行停止解除의 寬大한 處分을 받어 今後부터 一層謹愼하야 更히 如斯한 不祥事를 惹起치 안토록 注意할것은 勿論이어니와 紙面을 刷新하고 大日本帝國의 言論機關으로서 公正한 使命을 다하야써 朝鮮統治의 實績을 期하려하오니 讀者諸位께서는 特히 照亮하시와 倍前 愛護하여주시기를 바라나이다.

東亞日報社

今日夕刊八面

定價
一個月一部 金一圓四十錢(郵稅共)
三個月一部 金十一圓十錢(郵稅共)
六個月一部 金二十圓十錢(郵稅共)
一個年一部 金卅九圓九十錢(郵稅共)

昭和十二年六月二日
東亞日報社

三洋舍クリーニング部
京城·光化門三〇六番

完備된機械設備! 洗鍊된技術!
流線型씨-비스!
秋冬服의 クリーニング는 三洋舍로下命하시옵소서

三洋舍
安田
京城·光化門

防火温突石
改良蓋瓦
朝鮮蓋瓦
總販賣所
建興商會
京城鐘路一丁目七二
電光(3)七八五番

朝鮮語學研究會
京城府仁寺町一五二
電話光化門七七九番

內臟外科●傷害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京城府[illegible]町一三番地
電話光化門(3)一七九〇番

佛蘭西오리바-會社日本總經理
外國藥種直輸入元 오리바- 海昌洋行
京城黃金町二丁目八八
電本(2)一八七四番
振替京城八六六七番

創立記念事業으로 體育舘、大講堂新築

三、四十週年맞이하는各中等、專門

教育朝鮮의明朗譜

들을 조선의 앞길이 날이 갈수록 빛나여지는데 그중에도 각 교육기관의 확장은 더욱 빛나고잇는바 최근 동덕여자고보(同德女子高普)、보성고보(普成高普)、연희전문(延專)、제일고보(第一高普)、보성전문(普專)에서 빗가운 계획진행중에 잇다.

◇同德 동덕여고보는 조선의 여자교육사상에 빗나는 장구한 공적을 남긴 학교로 명년에 창립三十주년을 맞게된다고 한다. 동교에서는 이 기념사업으로 대강당과 체육관을 十만원경비로 건축할터인바 그중에 반액인 五만원은 교주 이석구(李錫九)씨가 자담하엿고 남저지는 일반학부형과 사회유지자들에게서 기부를 받기로되어 벌서부터 기부 신청이 답지하는 중이라 한다.

◇普成 보성고보의 학부형회와 교우회에서는 연합으로 동교 三十五주년 기념사업을 발기한바 三十五만원이라는 막대한 경비로 교사를 신축하는 동시에 대강당과 도서관을 건축할터이며 그중의 十五만원은 일반의 기부로 충당하기로 되어 방금 그 허가를 신청하고 잇는 중이다.

◇一高 경성제一고보(京城第一高普)에서는 동교 창립 三十주년 기념사업으로 총공비 二十七만원(一부 학부형들의 기부도 받)[illegible] 공사가 금六월 안에 착공이면 완성되리라 한다.

◇延專 연희전문학교에서는 금년으로 창립二十주년을 맞이하게 되므로 여러가지 기념사업을 계획중이라는데 동교졸업생으로 조직된 동문회(同門會)에서는 동창생들의 손으로 창립二十주년을 기념코저 五만원은 졸업생에게서 또한 이에 五만원은 다른곳에서 얻어 十만원예산으로 체육관을 동교구내에 세울 계획이라 한다.

그리하여 동교동문회에서는 벌서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수만원의 거액을 수합하엿다한다.

◇普專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에서는 창립 三十주년 기념사업의 일부로 도서관을 二十만원의 경비로 건축중이든바 六월중에는 만반설비가 완성될 예정이라 한다.

三重苦의 聖女

헬렌켈러女史七月에來京

疲勞로旅程을變更

二十세기의 기적(奇蹟)이라는 '삼중고(三重苦)'의 성녀(聖女) '헬렌·켈러'녀사는 오는 七월十일 부산(釜山)부두에 나려 조선에 첫발자국을 인치게되엇다. 그리고 녀사의 입경일자는 동월 十三일인데 총독부사회교육과(社會教育課)에서는 부내의 각교관계자들과 협의하야 환영준비를 하고 잇으며 경성제대、부민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하리라고 한다. 동녀사가 三중고를 그대로 체험하고잇다함 조선땅에서 무엇을 어떠게 감각하고 또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는 크게 기대된다. (사진은 켈러女史)

○—○

【平壤】 세계순여의 길을 떠나 조선에 들리기로된 삼중고의 성녀(聖女) 헬렌켈러녀사는 방금 일본내지에 체류중인바 오는 七월十五일경에 평양에 도착할터이라한다. 원래 평양도착의 일정은 六월 廿七일이엇으나 심히 피로한바되어 여행에 약 一주일간을 늦추어 조선에 들리기로되어 평양에서는 녀사를 성대히 마지하고저 관계단체에서 방금 준비중에잇다. 제一차으로 장로교회 경영 평양맹아학원(平壤盲啞學院)이 주체가되어 구시가를 중심으로 숭실전문학교대강당에서 학생과 일반을 위하야 두차레의 강연회를 열리어며 신시가를 중심으로 평양공회당에서 또한차레의 강연을 향하게될터이라한다.

紙價暴騰으로 담배製造에打擊

전매국(專賣局)에서는 연초제조에 요하는 두루마리 담배권지(卷紙)[illegible] 十만원이엇으나 모든물가 등귀를 이유로 금번 왕자제지(王子製紙)가 지가의 五할증액을 입보내자 전매국에 요구하고잇으므로 이것이 결정되면 자연 조선에도 통에의 인상이 실행되게될것이니 연초제조상 큰타격을 입게되어 거번 연초소매가 二할인상을 실행한 결과에 [illegible] 영향하게될터이라한다.

外地傳道部委員會 十日頃에重大會合

注目되는兩總務의現地視察報告

平壤 三崇校 後繼問題

【平壤】 오월도 다 넘도록 학생을 모집하지못하고 불안과 초조에 잠기운 숭전(崇專)、숭실(崇實)、숭의(崇義)세학교 관계당국자는 하루빨리 미국 전도본부로부터 후계승려의 회답만 도달되기를 학수고대하고잇는터인바 미국전도본부에서 거수하는 선교사 모씨에 의하면 평양에 세학교문제를 상세히 조사한 외지전도부 총무(外地傳道部總務) 레버、따-스양박사가 五월廿五일에 미국 뉴욕에잇는 동본부에 도착되엇다한다. 동본부에서는 양총무의 실지조사 보고에 의하여 승락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보이어 평양의 숭전、숭실、숭의 세학교 후계 최종해결의 열쇠는 오로지 전기 양총무 보고여하에 따러 잇다고까지 관측하고잇거니와 저편에서도 양총무의 귀착에 따라 즉시 전도본부(傳道本部)의 위원회에 회부될만한 최근 소식에 의하면 파반 조선에 들러 친히 위원회(委員會)를 개최할것이나 방금 미국북장로회총회(米國北長老會總會)가 열리고잇어 동 회합이 필한후 금월十일경에야 위원들의 회합을 보게될것이고 그의 중대결의 결과가 廿五일내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도달될것이라고 평양선교사측은 관측하고 잇다한다. 전도본부의 위원회 회합이 어느시기에 잇을것인가 한은 모두 궁금한바잇어 압길이 구구한 추[illegible]

時의記念 오는十日에

[illegible] 기위하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로 되엇다. 금년도에는 각정회(町會)를 비롯하야 시계상(時計商) 각관청 공장등을 동원시킬 방침이라는데 十일에는 본정(本町)어구와 광화 종로 네거리의 한편에 임시 시계수선소를 만들어두고 수시로 시계를 무료수선시켜주기로 되엇다한다.

鐵道局에선 보너스타령

철도국(鐵道局)의 상반기'보너스'는 드디어 오는 十五일 지급되기로 되엇는데 이를 타진해보면 종업원 二萬四千여명의 큰살림이라 그 지급액(支給額)도 百十(萬)원이라는 굉장한 수짜다. 그러나 전례통기에 비하면 사업의 진전 확장등 때문에 종업원을 二千四百여명이나 증원한 관계로 예산기타에 때워서 개인당의 금액은 고등관 판임관十할, 고용원은 十四五할이라는 예년에없는 소액이될 모양이다.

奇蹟的救命!

急行車에깔린三幼兒

枕木틈에끼이어無事救出

【光州】 급행열차에 치인 어린아이 一명이 기적적으로 구명되엇다는사실은 지난 二十六일 오후七시경 호남선 임곡(林谷) 송정리(松汀里)간을 질주하던 三배 十三호급행열차는 선로안에잇는 어린애一명을 발견하고 즉시 기적소리와가치 급정거를하엿으나 미처 정지못하고 치어버렷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상이아 승무원들이 뛰여내려보앗으나 기적적으로 그어린애는 괴목(枕木) 사이에 업드려서 九사一생으로 구명되엇다는데 그아이의 주소씨명은 광주군 林谷面林谷里 [illegible] 이라는데 다만 그머리에 경미한 부상을 당하엿을뿐이라 한다. [illegible]

結婚式場으로 經學院을開放

공문(孔門)에 [illegible] 이제 경학원(經學院)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다고 한다. [illegible] 가잇으면서도 오늘의 결혼은 [illegible] 재래는 시장과 혼례용 사렌자와 성인과 인연이 벌은바 구룸 빌리는데 바대한 비용이 들[illegible]

往十里複線工事

清凉里線에는鋪裝

경성전기회사(京城電氣會社)의 제공사는 착공하는 선사과게의 사는다음과같다

一、往十里線의 複線―東大門[illegible] 八月着工。

二、京城府廳前에서 赤十字病院에 이르는 鋪裝의 中央移設 八月初旬 着工。

三、清凉里線의 鋪裝 八月初旬着工。

四、三角地附近의 軌道取替工事는 六月二十日에竣工。

警官隊와衝突

【市俄古三十日發同盟】 씨·아이·오(C·I·O)의 강철노동조합위원회(鋼鐵勞働組合委員會)는 리파블릭·스틸회사에 단체계약(團體契約)의 승인을 요구하고잇든바 용인되지못하야 동사소속七공장의 노동자 一만은 지난 二十六일 일제히 파업에들어갓는데 시가고공장의 파업단은 三十일 금연 시위운동을 개시하야 경찰대와 충돌되어 대난투를 이르켯다. 경관대는 드디어 발포하야 처참한 수라장을 연출하엿으나 결국 파업단은 사자十명을 비롯하야 경관一명、노동자十五명은 부상을 입엇다.

佛兩鳥人 大阪거서東京에

【大阪電話】 파리(巴里)동경(東京)간의 장도를 계획중이든 불국비행가 아깝게도 불시착하야 부상을 하고만 불란서의 비행사도레 미케레는 고지(高知)적십자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든바 경과가 양호하야 조난四일째인 廿九일오후 [illegible] 고지비행장을 출발하야 비행 [illegible] 대판(大阪)에 도착하야 一로그리운 동경(東京)에 향하엿다.

娼妓와살길없어 青年이飮毒

情은깊고 돈은없어

시내 황금정(黃金町)三정목에 사는 한수동(韓壽童)(二○)은 一일 오후 八시경 자기집에서 다량의 정산가리를 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응급치료를 가한결과 생명에는 관계없이 되엇다. 그가 자살하려든 원인은 최근 신정(新町)의 어떤유곽의 창기 춘자(春子)(二○)라는 여자와 정이 깊엇으나 돈이없어 도저히 가치 살수없는것을 비관한것이라 한다.

許可없는妓生、女給 風紀紊亂이極甚

서시에짜울지이 드라이브、온천행

券番에도嚴重警告

최근 경성부내의 기생、여급중 기생 산관계이는 일정한 계출과 허가도 없이 사람의 눈을 피하야 사랑하는 남자와 온천등지로 달려가며 또는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하는등 풍기를 문란케 한다는 풍설이 잇으므로 종로서보안계에서는 관내의 가바·와 카페등을 내사한결과 의외에도 적지이상의 여급과 기생이 영업을 경영하고 잇는사이 잇으므로 동서에서는 즉시 주수와 전기 여급들을 호출하야 엄중한 처분을 하기로 하엿다. 그리고 기생권번에 대하여는 게 될때에는 영업정지를 시키기로 결정하엿다.

防空係新設

具體的準備着手

총독부관방에 두고자

국민방공법의 시행을 위하야 총독부에서는 관계개정을 위하야 오는 七월부터 관방문서과(官房文書課)에 방공계(防空係)를 신설하고 속관三명을 배치하기로 되엇는바 동계에서는 주로 방공법시행의 내면으로부터 착발할 동을 시기에 따로 관방또는 내무국에 一과를 독립시킬[illegible]

六月의 象徵으로 길가 【오늘·府廳에서】

青年醫學博士

崔在裕氏論文通過

'세브란스'의전강사 최재유(崔在裕)(三二)씨는 소화九년부터 동一一년까지 경도제대(京都帝大) 안과(眼科)에서 연구를 거듭하야 「나프타린」백내장(白內障)에 관한 「구르타티온」과 「비타민C」의 관계라는 론문과 참고론문수편을 경도제대교수회에 제출하엿던바 지난 五월三十一일 동교수회에서 통과되어 의학박사의 학위를 얻엇다. 최씨는 배재고보와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후 동의전강사로 잇다가 전기와 같이 경도제대안과에서 연구하고 잇어 장래를 촉망받던 독학의 분이다. (사진은최재유씨)

第二十師團 春季大演習

제二十사단에서는 오는六월一일부터 七일까지에 각연대와 소화十二년도춘기연합대연습을 실시하기로 되엇는데 그실시기일은 평양(平壤)、대구(大邱)는 六월一일부터 三일까지 대전(大田)은 五일부터 六일까지 용산(龍山)은 三일부터五일간 각연대와 특과대도 특히 용산부대는 산하(山下)四十여단장의 통할아래 경성、수원간에서 행하는데 보병령의중심과 특과대(特科隊)가 보병대에 비하야 그특징을 충분발휘할것이다.

朝運서도增俸

조선운송(朝鮮運送)에서는 六월一일부터 전사원 二천二백여명에 대하야 최고 一할七부 최저五부의 증봉을 단행하엿다는데 이는 각방면에서 단행하는 증봉에 추수하것으로 근일 물가폭등을 고려한것에 기인한것이라 한다.

東亞日報 京城販賣所 電光 七三〇
西部販賣所 電光 三〇九五

판토크린

Pantocrine USSR

東洋萬古의秘藥
鹿茸의新藥化!
世界的造血·强壯·强精·特効劑

판토크린은 蘇聯國立內分泌研究所에쓰·엠·파브렌코博士及同所醫藥、生物學者諸氏가、深奧하고、該博한學理와、臨床實驗으로、心血을다하야。創製한花鹿茸의精血、卽東部西伯利亞特產鹿의아직 骨化치안흔 叉角의血絲及血球를 濃縮한 臟器製劑이다。 다시말하면판토크린은 東洋萬古의 秘藥鹿茸을現代最新科學原理에符合하야、新藥化한·世界唯一의造血·强壯·强精特効劑이다

適應

貧血·一般虛弱·心臟疾患·心悸亢進症·生殖性神經衰弱·陰萎·早漏·夢泄·老衰·憂鬱症·肺結核·腺病質·產後衰弱·肋膜炎·消化不良·食慾不振·慢性便秘·病後衰弱·萎黃病·子宮出血·帶下症·外傷·膿瘍及切開手術後

高貴秘藥 花鹿茸의 大衆化!

그야말로特殊階級만이享有珍、하든花鹿茸을이제는누구든지쓸수잇다!

全世界醫療界의一大光明!
虛弱者와病者의一大福音!

現代醫藥學界의 理想的極致!

(花鹿茸精血) 蘇聯國立內分泌研究所創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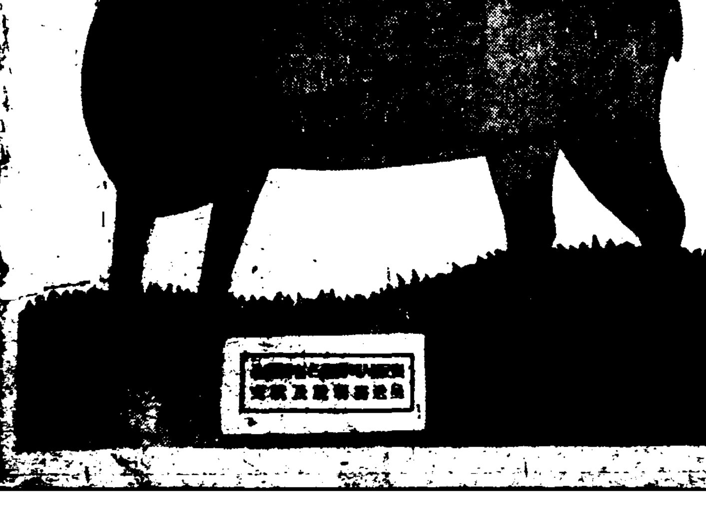
鹿茸이太古時부터 東洋諸國에서 萬病의特効藥、特히造血·强壯·强精·强心劑로서、珍重愛用되여온것은勿論이거니와、鹿茸에는品質이超絕하게優越하야柔軟、血管에만흔花鹿茸과、品質劣等한市販品馬鹿茸의二種이잇슴으로 世界周知의事實인바、本劑(登錄番號一二七一〇二號)는實로 이花鹿茸의主成分을、最新醫學原理에依해서 獨特한技術과方法으로、完全無缺하게抽出精製한것임으로、心·胃·腎·神經·肺等을特히補强하야、造血成骨하며、吾人으로하여금精力과生氣를無窮케하는、實로最高度로 發達된現代醫、藥學界의理想的極致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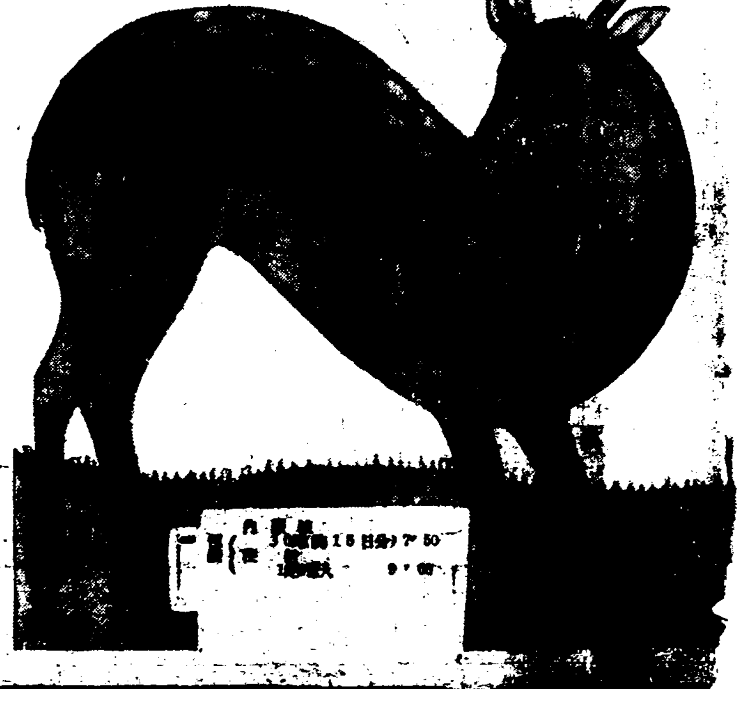
本劑의効力에對해서는洋醫、漢醫를勿論하고、貴信任醫師에게問議하시고服用하시라!

資本金壹拾萬圓

直輸入發賣元 共生藥業株式會社

京城鍾路一丁目七一
電話光化門(長)二五四七番
振替口座京城二二〇〇〇番





家庭

유행계를찾어서 (上)

유행은 누가 지어내나?

손님 눈치 보아가며 임시변통으로 맨들어 내는 것입니다

유행은 시대를따라 변합니다。 비록이 금번 접어들어서 부터는 세사가 소란하니만큼 일반의 유행향도 이 세대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문명은 시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마는 유행도 그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시키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자는 금번 여름의 유행을 터잡아서 거리로 나왔읍니다。

◇

「금년에는 무슨 빛이 제일 유행합니까」

최신 주단포목부의 문을 두드려 보았읍니다。

「금년의 빛깔은 채일인지 엷은것보다 진한것이 한치 유행됩니다。 벌서 여름철을 접어들었건만 손님들이 찾는것은 모두가 진한 빛입니다。 어찌이니 만큼 한빛 곽 옥색이 대부분이나 하행, 지업부인、가정부인들은 대개 지튼 색을 찾습니다。 화류계나 유―」 하다가 점원은 머뭇머뭇 하기에

「유한매담요?」

하고 우스니 그는 싱그레 우서보이며

「그분들은 국방색을 몹시 찾습디다。」

「값은?」

「금새요」

「고급품요로는 최하七、八원부터 최고 二十원내외까지 있읍니다만 그런 고급품을 찾는사람은 약 반밖에 안됩니다」

「저편보다는?」

「고급품 찾는손님은 자연보다 최신 준 셈입니다」

「금회는 대개 어떤것이?」

「그것도 손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은 가정부인들도 비교적 담박한것을 피하고 변화한 문의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유행이란 어디서 먼저 옵니까?」

점원은 싱그레 우스며、

「어디 유행이 특별한데가 옵니강 세상의선 동경서 오느니 파리서 오느니 하지만 대개의 유행은 우리가맏듭니다。」

하고 시침이 떼보니다。

「유행을 만듭니다요?」

「영특한 점원이 손님보다서 그 손님의 환경에 맞음직한 빛이나 문의를 골라서 권하는게지요 그러면 또 그분이 선전해주시니까 그게 바루 유행의 시초가되고 맙니다。」

기자도 이말에는 놀랏읍니다。

「패화점이 유행제조소?」

하고 혼사 우섯읍니다。

「여보서요 치마감좀 보여주세요。」

무심코 돌아다보니 삼십가까워 보이는 가정부인입니다。

「어떤것으루 뵈여 드릴까요。」

「뭐 요새 새루 나온것 없어요 값좀 비싼것으루요。」

「많읍니다。 한감에 한 오륙원정도로 보여 드릴까요?」

「아이구 망칙해라。 오원짜리치마 어떠게 입어요。 좀더 조흔것……」

기자는 다시한번 그 부인을 처다보앗읍니다。 제일 싼것을 찾는축과 제일 비싼것을 찾는층……

「잇습니다。 한감에 十九원四十전입니다」

「어머!」

여기까지만 보다가 기자는 밖으로 나왓읍니다。

모자라요

선생님 「사파다섯개와、 참외네개를 합하면 몇개나되느냐」

하고묻은즉 어떤학생하나가 양말을벗느라고 부스럭부스럭하고있섯습니다。

선생님 「애 너 웨양말을벗느냐」

생도 「선생님 아모래도 손가락이모자라서 그럽니다」

家庭常識

땀빼는법

갖지고 고흔 적삼을 입고 밖에 나가서 아모리 조심을한대도 집에와서 벗어보면 겨드랑땀에 저서 땀얼이 아닙니다。 채마르기 전에는 마른수건과 저진수건 사이에두고 손이에 땀배인곳을 벼으로 탁탁치면 땀이 밤에졸려나오는 동시에 마른수건이 빨아드리거든 나중에 물을 뿜어 다리면됩니다。

一人一言

(2) 보건과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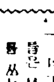
韓小濟

장래의 국민을 어떠게하면 좀더 건강하게 좀더 충실하게길러볼수잇겟느냐는것이 일반 어머님들의 다시없는 복서이오 소망일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를건강하게 기르도록 지도하는 기관 영아보건회가 경성을위시하야 각지방에서도 만흔성적을내고 잇는것은 국가를위하야 기뻐하여마지아니하는바입니다。 일면간 애기들을다리고 영아부신참소에와서 진찰을받은후 기르는지도대로 일년동안 길러보아 건강한애기를 맨드는 어머님께 보건회에서는 한재미로 상금을 드리는것이니 상금받을만한애기를 맨드는것은 첫재로 애기가 건강하여젓스니 기뻐하는바이오 둘재로 상금을받게되는 애기가만허질사록재미도 잇고 그만큼 건강한 애기가 늘어가는것을 그게기뻐하지아니 할수없는 일이지마는 만일 어려어머님들께서 너머상금에만 치중하야 애기의건강은 둘재로하고 상금아지못하면만 불평불만을 사게된다면 이는 애기들의 건강을 위한다느니보다 상금을 위하는것이되니까 이런에 상금을 받지못하였스면 명년에는 우리애기도 상금을 할수잇도록 좀더 노력해보겟다는 새로운결심으로 더욱건강에 주의를하는것이 어머님의 본분이라 할것입니다。

명년의 상금을 받는 의복차 (寫眞에서)

졸리 삽죽겟네!

늦잠잔다고야단마십시오 더구나 아이들이태요



요새는 한참 솔려견디기 어려운때입니다。 전시만어고앗으면 아무리 무서운 선생님 앞이라도 염치없이 꼬박꼬박 졸려서 한잠 잣으면 살이 오를듯한 일기입니다。

더구나 고단하게 공부하는학생들은 보기에 딱할만큼 솔리어 애를 쓰는것입니다。

잠을 잘자는데는 두가지 까닭이잇으니 한가지는 낮에 살들고 운동을하는 한편 공부를해서 머리를 쓰게되는고로 사실이 아울러 고단해서서 이밤주에 만틈만 깊은 잠이들어 꿈한번 보지안코 누가 욱거가도 모를만 하게되고 아침여섯시만되면 벌서 깨게되는것이나 이런것은 아이들이오。 한가지 크히거강한 지는 체질이야해서 웬일인지모르게 동작이 민활하지못하면서 잠들기가어렵고 거진새벽이되어 겨우깊은 잠이드는 아이가잇나니 특히 도회에서는 종용하지못하야 더구나 신경질인 아이는 깊은잠을 사지못하고 떠드는대로 전차소리가 들리는대로 잠을 깨게되나가 새벽이 되어 겨우잠이든것을 아침이되면 반여잠신아이와갇이 이러나라고 야단을 하게되면 그만큼 그아이는 잠이 부족한것이니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고 나중에는 신경쇠약증까지 이르키는일이잇습니다。

그런데다가 도회지에서는 일즉이 이러난다고해서 별로 공기가조커나

아츰이슬이

기분조케 잠속은줄 수도 없는일이니 가정의 사정과본인의 체질을 잘생각해서 보통학교학생이면 필수시간으로업시간가량 채우는것이 조흐나 너무 오래동안 재우는것도조흔것은 아니니 아모조록 숙면을 하도록 힘써서 깊이 잠든것을두드려 이르키지안토록 할것입니다。

보통건강한 아이는 더자라고해도 더 드러누어 잇지를 아니하는것이니 필수잇는 정도로 깊은잠을 자도록 할것입니다。

女性界消息

시수이자기예하원

미술재봉에 전위자인 전북해(韓晦海) 여사는 천주인 千守連씨와함께 진주 晋州에 여자기예하원을 설립하고 기예발、직업양성위식안내를 목적으로하야 만흔 노력을 하신답니다。

東洋劇場의豪華週刊 ◇ 劇團豪華船의公演

海外演藝消息

◇푸쉬킨의大作 映畫化

푸쉬킨의 百年祭를 記念하기爲하야 로서아와 佛蘭西에서는 그의小說 傳記가 盛히出版되며 或은 劇化、映畫化되고 잇다。

이번에는 그의代表作「스페―드의女王」을 映畫化하는데 그監督은「카라마소푸의兄弟」의 監督으로 有名한 표―도르•오쨉으氏라하며 「罪와罰」에서「라스콜니코푸」로 扮裝한 「피에―르•뿌란사―르」「소냐」로 扮裝한 「마드레―느•오―스레」와 共演하는것인데 近日에 完成하여지나한다。

多事多彩가豫想되는 朝鮮劇界의現狀

◇…六月中待望의諸公演…◇

朝鮮劇界는 一方에 演劇專門의 東洋劇場이잇어 그專屬劇團인 靑春座와 豪華船이 中央과 地方을 번갈어가며 公演하고잇고 一方에는 新劇運動 劇藝術研究會가잇어 가장眞摯한 態度로 年數回의 公演을 하는外에 地方巡回劇團이 [illegible] 다른 變이 없이나려오든바 最近에와서 昨年에 創立公演을하고 한동안 消息이 杳然하던 朝鮮演劇協會가 거의 一年가까운 沈默을 깨트리고 第二回公演을 六月八、九兩日間 京城府民館에서 가지어 「걸인없는바다의 夏季」三幕과 「盲夜」一幕을 上演하려고 方今 猛練習中이라고 靑春座에서 最近脫退한 劇人數氏와 其外의 某某氏로써 새로 結成되리라는 中央舞臺가 六月二十三、四、五日의 三日間 역시 府民館에서 第一回公演을 가지리라하고 劇硏은 六月公演은 쉬기로하엿으나 夏期三個月間을 自體敎養에 專力하고 九月十一、十二兩日間 第秋第十八回公演을 盛大히 가지리라한다。

이러하야 今後의 朝鮮劇界는 자못多事한 中에 더욱多彩한 現象을 呈할것으로 보인다。

「내가사랑하는사람들」

演劇專門의 唯一한 劇場으로 大京城의 팬을 吸取하고잇는 東洋劇場에서는 專屬劇團 靑春座와 劇團豪華船의二劇團을가지고 完全히 演劇殿堂을 이루고잇다。 方今 劇團靑春座는 西鮮을거처 南鮮巡演의길을 떠난中이며 中央에서는 劇團豪華船이 公演을하고잇는中인데 上演脚本은 林仙圭作「내가 사랑하는 사람들」三幕五場으로 特히 舞臺裝置는 元偶田、金雲善兩氏의 協同製作으로 從來에드문 華麗壯大한것으로 完然히 金剛山을 옴겨다노흔것 같다 하며 俳優들의 熱演이 또한 可讚할바잇서 方今 大人氣中이라 한다。

(寫眞은 『내가사랑하는 사람들』一場面)

劇評

山木生

周尙德라는 富豪의 姪 英子와 梁柱鳳과의 戀愛事件을 中心으로하야 이劇의 이야기는 展開된다。 一幕에 잇어서는 모든 事實이 順序잇게 進展되며 現代에 잇는 平凡한 社會相의 一面이다。 뿐이란 現代靑年이 아름답지 난 그前 愛人 鄭淵을 바리는 것이라든지 周의집에 잇는 [illegible]이가 英子를 사랑한다는것이라든지 英子의 親父 許金知가 自己딸의 將來를 爲하야 딸어다니면서 [illegible]하고 英子의 自操를 지키여 주는것이라던지 周氏의 下人 呑伊와 乙女가 戀愛하는것이라던지 大體로 보아 퍽으나 自然스럽다。

그러나 二幕에 이르러서 劇中 事件한 人物은 全部 金剛山에 모여노코 鄭淵이가 梁柱鳳에게 復讐한것이라던지 許金知가 그곳에 와서 自己 親母의 危境을 救하는 것 等等은 劇을 完成시키기 爲하야 너무나 人爲的이라고보지안흘수 없다。

그러나 第二幕의 裝置는 過去에 보지못하는偉觀을이루엇다。 그러나이와가티 舞臺는 조금도 空地가없게 山으로 채우워노흔것은 좀問題되지안흘가하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劇中人의 動作이 局限되어 不自然한點이■없지안하다。 最初의配置는 퍽으나 効果的이엇다。

演技에잇어서는 許金知로 扮裝한 朴昌煥氏가 뛰어나며 梁柱鳳으로 扮한 張陣氏도 그天分을 充分히 發揮하야 이劇에잇에서는 適役이엇으며、그聲音은 舞臺에서 퍽으나 音聲이 조화섯다。 上야지對로 劉桂仙氏는 소리가比較的 低音이여서 살리지 안흥 때이면은 音聲에 對하야 만흔 修練이 잇어야할것갇흔 생각된다。

一般으로 본다면 技術에 잇어 그러케빼움이 俳優는 업섯다。

씨나리오文學硏究者數氏 月刊雜誌「映畫作家」創刊

진보적 영화인 제씨의 형동적단으로 씨나리오문하의 건설을 진과 진실한영화의 평을 위한 엽간잡지「영화작가(映畫作家)」가 날일시장에 나타나리라한다。 이는 우봉제의 새로 긴이가는우리영화계를 위하야 자못 경하로운일이라하야 기며가 크거니와 더욱 동집단에서는 금후로 진실스러운 영화에 문학의 관심을 대중적으로 고취하는 기관에까지 발전식히다하여 동경에서 발행되는 「키네마순보」의 「영화평론(映畫評論)」선통신조까지 이르러버의 손으로 레포되기로되엿기때문에 실제의 금후로제작되는 조선영화의 해외진출에대한 교량(橋梁)이 되리라고한다。

그편집의 대표동인과 사무소는 다음과 갈다。

編輯委員 金幽影、金鉉、李貞、金正革 事務所京城府鍾路六丁目十一番地

京鄕碁客이總集할 全朝鮮圍碁選手權大會

◇本社主催•詳細는追後發表

朝鮮에도 圍碁가 一般娛樂으로서 相當히 普及되어잇으며 到處에서 盛行하고잇다。 이에 鑑하야 本社에는 일즉부터 圍碁欄을 設置하려는 計劃이잇엇으나 紙面關係로 實現치못하고잇던다 이번에 『演藝와娛樂』面을 두게됨에 際하야 圍碁欄도 新設하기로되엇는데 于先 京鄕各地의 碁客을 一堂에 모이게하야 각각 力量껏 黑白을 다투어보게하는것이 碁界로보아서 興味도잇고 意義도잇는일일까하야 本社에서는 本欄主催로 全朝鮮 碁客選手權圍碁選手權大會를 開催하야 斯界의國手를 公定하는동시에 棋界滑稽 本紙에連載하야 同好讀者의 娛樂에資하기로되엇다。

이것이 斯界에잇어서는 最初의 試驗이오 또 時期로말하더라도 正히 圍碁에適當한때이니만치 이會合이 劃期的盛況을 이룰것은 十分豫期되는바이다。

時日、場所、等級、賞金、參加手續、選拔方法等에關한 詳細한 規定은 追後發表하야 發表하겟다。

演藝와娛樂

世界甲富는누군가

財産은四十億圓以上

世界에 第一가는富者 오늘 이렇게이 그러타면 十六億이니 라가 죽은後로 그의財産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하여하는 사람이 적지안타。 千九百年의 精密한調査에 依하면 四十億圓 四億弗이엿다니 그러타면 十六億이니 一의 大富豪 三井家의財産이 九世紀에 世界第一富者인 九億圓이고 [illegible] 에 [illegible] 二千四百萬圓 [illegible] 로 된다 [illegible] 家를 合하어도 모희의富를 [illegible] 못하야 그때부터 世界第一 [illegible] 로 되엇섯다。 米國에는 二大富豪 가 잇는데 一은 록펠라 一은 自動車王포―드다。 이三大富豪中 에서도록펠라가 第一位인것은 더말할것도 없거니와 其他二家는五億弗에서 十億弗의 새이라고보니最低로 五億弗이라고하드래도 換算하면 十七億圓이니 三井十一家를 全部合한 十六億보다도 만흔셈이다第二位第三位가는 富豪의 財產 이이러한지라 第一位가는 록펠라의現在財產은 얼마나되는가? 千九百年의三倍가 되엿다고 본는것

◇寫眞은 록펠라氏

은 [illegible] 이것 [illegible] 一의 [illegible] 이 每月 百圓式을 全部 貯金한다하드래도 한사람이 三百三十七萬年을 지내야 [illegible] 된다는것이다。

라디오

六月二日(水) 第二放送

▼午後六時 (東)英語講座(三) 譚村寅二郎

▼六時三十分 兒童과先生의時間 京城校洞公普校

▼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講演 偉人의青年時代 徽文高普 金道泰

▼八時 婦人講座 同德女高 宋今璇

▼八時三十時 獨唱(歌劇六曲) 崔昌殷 피아노伴奏 崔熙南

▼九 明劇劇 一、短歌 楚漢歌 二、明劇劇 與夫歡中제비나오는데 鼓手 宋萬甲 丁元僕

第一放送

▼九時三十分 (東)時報、ニュ―ス、氣象通報、地方の產業ニュ―ス、今日の順序

▼十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레코―드音樂(國語)

▼午後六時 [illegible] 三十分(東) [illegible] ル•ピッコロ ▼六時五十五分(東)カ ドモの新聞 ▼六時五十五分(東)カ レントトピックス ▼七時三十分 (大)講演現下の財政經濟 [illegible] 至上精神▼八時(大仙) [illegible] (仙臺)―仙臺市 [illegible] 近より中繼―(大阪)―兵庫縣(甲山龍武庫川畔より中繼)―▼八時三十五分 大交響樂 [illegible]

六月三日(木) 第二放送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午後零時五分(大) 日用品時勢 木曜코서―트(舞蹈音樂)

▼一時十五分 家庭時間 여름의 衛生 醫學院 金永喜

▼六時三十分 하―모니카와獨唱 MKM、[illegible]會員

▼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illegible] 明敎社 許永鎬

▼七時三十分 뉴―스、天氣豫報 職業紹介

▼八時 [illegible] 京西 [illegible]

▼八時三十分 歌曲 [illegible] 安明玉

▼九時 [illegible]

配役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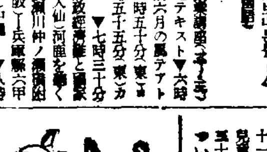
▼九時三十分 [illegible]

▼十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今日順序

(第一放送)

▼午前六時(東)ラヂオ體操 [illegible] ▼九時五十五分 [illegible] ▼十時三十分(大) [illegible] ▼正午 [illegible] ▼六時三十分(城) [illegible]

應接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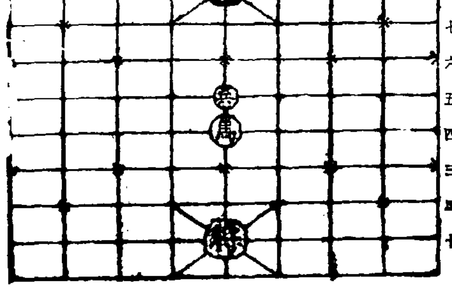
記者、讀者에關한 丹情이 [illegible] 서 [illegible] 어느사이에 지난것여름 하오리까 [illegible] 안 여러분은 다들 [illegible] 나다。 오늘 [illegible] 문을 열엇사오니 [illegible]

博譜

(1) 紅(陽山)勝紅先敗(十三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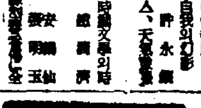
(解答은明日紙面에)

其一 公孫劍舞



當選小說 彼岸의太陽 (1)

李圭東作 盧心汕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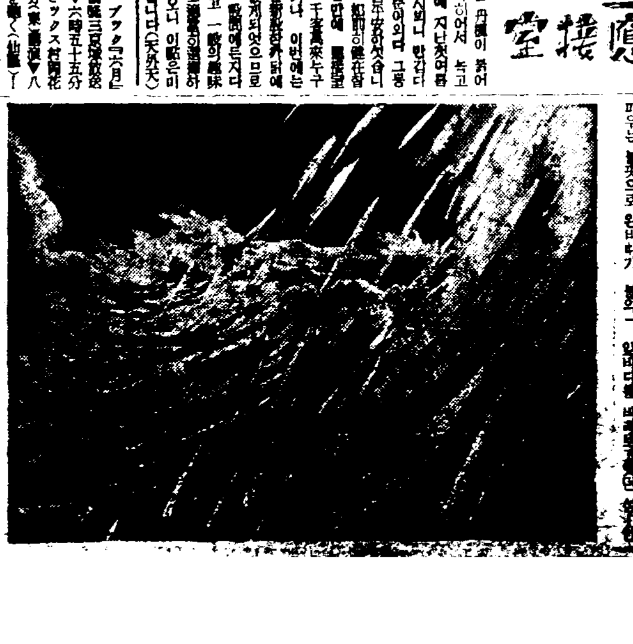
폭풍(暴風)…一

「명호! 명호……」

하늘과 [illegible] 누구인가 명호를 고 [illegible]

그러나 이 부르는소리를 명호 [illegible] 누구하나 [illegible]

[illegible]



세계가 되엿고 수천사람의 아우성소리는 바야흐로 세상을 [illegible] 어둡것갑다。 ―그들은 [illegible]

[illegible]

이윽고 가늘고 [illegible]

사람들은 바다가 [illegible]

[illegible]

祝續刊

代表的滯症藥

朝鮮賣藥

령신환

一人一匣
一家一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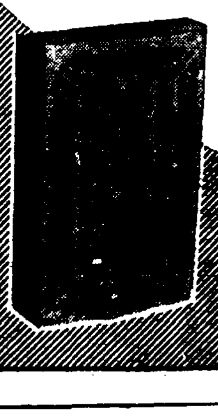
여러분! 여름은胃腸의安定을破壞하는때올시다。 暑熱의여름、惡病流行의여름에있어서、胃腸病을물리치시고、一家眷率이、泰平無事히지내시려거든朝鮮唯一의 健胃消滯良藥인朝鮮賣藥「령신환」을只今붙어準備하십시오!

主治

食傷、食積、氣鬱、胸痛、腹痛、吐瀉、酒醉、船暈、

藥價

◇普通匣(十丸入) 金十錢
◇懷中匣(二十二丸入) 金二十錢
◇旅行匣(六十丸入) 金五十錢
◇家庭瓶(百廿五丸入) 金一圓
◇德用瓶(三百卅丸入) 金二圓五十錢



類似品注意

發賣元

朝鮮賣藥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②六六四·二三八四番
振替口座京城二四八〇番

朝鮮賣藥株式會社仁川支店
仁川府京町一七一番地
電話五六一番
振替京城二三八二二番

祝續刊

醫療藥品製造

三仙岩
登錄商標

金剛製藥所

全用淳

本　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七
電話本局②囸一三五三番
四九六一

取引銀行　朝鮮銀行·第一銀行京城支店
朝鮮殖産銀行·安田銀行京城支店

支　店　奉天加茂町一三
電話囸②三六八四番

現文壇驚異의作作 "彼岸의太陽"當選

本社第二次公募長篇小說

作者는新人李圭熹君

◇李圭熹君

본사가 제二회 장편소설(公募長篇小說)은 신인 이규희(新人李圭熹)군의 역작 「피안의태양」(彼岸의太陽)이 당선되엇습니다.

◇……◇

본사가 일찍이 사례금五百원으로써 장편소설을 현상하야 공모하야 제一회에는 고신철(高新哲)씨의 역작 「살수」(薩水)를 얻어 만천하독자의 열광적 환영을 받엇 엇고 뒤이어 제二회의 공모를 발표하야 떼어 편의 응모로써 자연 六월말로 마감하고 고선에 착수하야 전 [illegible] 피안의태양을 얻어가지고 이를 발표하려하던차에 불행히 불의의 사건을 맞어 중단되엇든바 이제 속간되는 첫날부터 그 작품을 실리기로 하며 동시에 그 고선경과를 발표하기로 합니다.

◇……◇

……한 과거로 미래로 아니 현재의 우리들은 어떠게 살아나가야…… 가장 정직하고 세밀하게 이야기를 찰해 보려고……

當選感想

李圭熹

[illegible]

作者略歷

[illegible]

三小說同時連載

「彼岸의太陽」外에 李無影作「明日의鋪道」와 金武吉作中篇「寂滅」

◇李無影氏◇

◇金武吉氏◇

본사의 장편소설공모는 매년신춘에 외래하는 현상문예모집과는 달리 그목적이 신인을 발견함에 잇는것이아니오 뛰어난작품을 얻음에 잇는것이매 응모자는 신인은 물론이오 기성작가들도 하나 뽑은 작품을 찾어아니엇습니다. 그러므로 고선위원은 가장엄정하고 신중한태도로 작품을 접촉하야 신인과 사화를 고려하거나 기성작가의 작품이라는 예표로서가 아니고 같은 저울위에 달앗서 다루고 재이고하야 드디어 얻어진 작품이 신인 이가희군의 「피안의태양」입니다. 여기서 오로지……

◇……◇

……본보가 성하게 보존 [illegible] 한때에 본보 [illegible] 의 「明日의鋪道」 …… 소설 새 편을 …… 彼岸의太陽 이오 하나는 …… 金武吉씨의 중편 「寂滅」로서 ……

新刊紹介

▲リストの生涯（森本覺丹著）定價八十錢 發行所 東京市神田區錦町 音樂世界社 振替東京七三九一七番

▲科學と倫理學（林髞太郎）定價三十錢 發行所 岡山市山崎町四六 林髞太

▲ゴリキイ文學論 定價一圓二十錢 發行所 東京市牛込區改代町三六 耕進社

▲エセーニン詩抄（八田）定價一圓二十錢 發行所 東京市淀橋區角筈二ノ三〇五 百周社

▲本邦婦人服裝略史 定價四十錢 發行所 東京市王子區[illegible] 振替東京七六〇一七番

從來連載物一切中止

本報停刊當時에 連載하던 小說、論文等 繼續讀物은 모두 一切中止하고 今日부터 새로운讀物을 시작하야 面目을 一新케하기로되엇사오니 讀者의 深厚한 諒解를 바라는 바이며 그대신 今日부터 連載하는 諸讀物에 對하야 倍前의 愛讀이 잇슴을 믿는바입니다.

東亞日報社編輯局

畵壇重鎭에委託

挿畵陣의强化

盧心汕、安夕影、洪得順三氏

◇盧心汕氏◇

◇安夕影氏◇

◇洪得順氏◇

조선소설에 조흔 삽화를 곁드리므로써 [illegible] …… 이번의 삽화는 이가의사 「피안의태양」은 심산 노수현(心汕盧壽鉉)씨가 맡고 이무영작 「명일의포도」는 석영 안석주(夕影安碩柱)씨 김무길작 「적멸」은 [洪得順]씨가 맡기로 되엇는데 …… 오 독자와 기쁨이 아니할수 없습니다.

映畵小說은再募

制覇歌는 中止코

期限을 七月末日까지 延長

본보가 현상 모집하든 …… 「영화소설」 …… 다음 「영화소설」은 당초의 계획대로 다시 모집 하기로 하는데 …… 七월말일까지 연장합니다.

作者의말

—나는 「彼岸의太陽」을 통해서 …… 조선사람의 생활 …… 그려 보렷습니다.

藝術의新境地를開拓하라

映畵小說懸賞公募

映畵는 現代的인 新藝術로서 자못長足的인 進步로 獨特한 文化를 形成하여가는 途程에 잇다. 그 大衆과의 接觸面이 넓으니만치 이에對한 一般의 關心이 나날이 커감을 보나니 이를 適宜히 獎勵함으로써 「敎化的乃至文化的 成果가 적지안을것을 느끼는바이다. 「그러므로 本社에서는 昨年新春에 써나려오든 懸賞公募하야 斯界의 振興에 貢하는 先鞭을 着하엿섯거니와 이번에 또 다음과같이 一種의 映畵小說을 天下에公募한다. 이에 「一種의 映畵小說」이라 하는것은 從來의 所謂 「映畵小說」이 아니오 映畵와 文藝과의 有機的聯合이 可能함을 具體的으로 보여주는 새로운形式의 讀物을 意味함이니 이를 紙上에 揭載하면 「읽는映畵」가 되고 多少의 씨나리오的 脚色을 더하면 곧 撮影臺本이 될수잇는 것이라야한다.

規定

一、內容。 全朝鮮 著名한 勝景古蹟을 되도록 많이 畵面에 나타나게하되 이야기의 構成은 興味잇고 無理없이할것 [illegible]

一、長短。 製作하야 十卷으로될것으로 紙上揭載에는 一頁一百字原稿紙九頁을 一回分으로하야 三十回以上이될것을 要함

一、賞金。 貳百圓

一、期限。 七月末日

注意

一、應募作에는 반드시 一千字以內의 梗槪를 添付할것을 要함

一、當選作의 製作權은 本社의 所有로함

一、落選作은 全部返送함 [illegible]

一、應募作은 本社 學藝部로 보내되 外封에 「映畵小說」이라고 朱書할것을 要함

東亞日報社

滿天下讀者諸賢에게謝함

設特刊

個人이나團體

그社會 그民衆의 絕大한支持와援助를 받을때 그個人이나 團體로서 오즉 感謝하다는 言辭로써만 그謝意를表하기는 어렵다고밋는바입니다. 우리社會에 비시부터 우리 柳韓洋行의存在가 認識되고 柳韓이가진바 一定한趣旨와 確乎한 目的파 使命에對하야 우리社會大衆이絕大한理解와熱烈한 支援으로써 今日의 柳韓의形成을 보게되고 또光明한 希望을 갓게하여주시에 對하야 우리社員一同은 玆에 滿天下讀者諸賢에게 무어라고 謝意를 表할바이업나이다.

柳韓洋行의趣旨

諸賢!! 우리民衆의 참다운 幸福을 齎來하는運動에는 여러가지가잇습니다. 文盲打破도잇서야經濟的發展도잇서야될것이며 政治的努力도 잇서야할것입니다. 그러나 在來로社會의發達史를보면 恒常그社會의 保健과衛生向上을先頭로하고 그다음에 그社會의 文化와民度가發展하엿든것입니다.

換言하면 한社會는 그民衆의 血管속에 우렁차게 도라가는血液 機敏하게作用하는神經 器官의完全한活動 그리고 駿足鐵腕 이모든 健康의銳刄을갓춘後에야 비로서 넘처나오는 溌溂한 生活力을가지고 그民衆의 偉大한抱負와 經綸을 實行할수잇는것입니다.

그럼으로 柳韓洋行은 일즉이保健파 衛生向上이 무엇보다도 우리社會의 急先務임을 自覺하는同時에 이것을 柳韓洋行의目的으로定하고 爾來十有餘年間長久한時日파 不斷의努力으로써 使命을 다하려고盡力하여왓습니다.

以上의目的파 使命을 達成함에잇서 그에對한柳韓의 政策으로우리는 먼저 우리自身에信實하고 우리民衆에게對하야 誠實할것을 盟誓하며 「信用을우리의生命으로삼고」創設以來長久한歲月파 莫大한費用을드리어 우리의 腦汁을 搾出하야 銳意努力한것은 保健運動에 最大武器인 卓效的治療劑를 恒常 世界에서 探求한것입니다.

따라서 現在柳韓洋行은 英米佛獨等의 先進諸國을爲始하야 特殊藥品의 世界的生産國인 諸威、瑞西、加奈陀等諸國에亘하야 第一流製藥會社인 아봇트、스큅、에반스、파스토-릭、디로會社等三十餘個所와 密接한連絡을取하고 特殊藥品數百餘種을 直輸入하야 日本 中國 滿洲國 朝鮮 臺灣等의 醫藥界와 一般大衆에게 迅速히 配給을하게되엇습니다.

이가티 廣汎한地域에亘하야 重大한使命을 負한 柳韓洋行은 언제든지 醫療界의 時急한需要에 應할수잇도록 全機構를 整備하엿스니 即自由港인 大連港에 大倉庫를 設置하고 連絡不絕로 京城 大連 上海 臺灣等 本支店을 通하야 配給에 完全迅速을期하는同時에 京仁線素砂에 大工場地帶를擇하야 製藥硏究實驗所를 設置하고 專門技術者로하여금 恒常 直輸入藥品의 効能을 檢討케하고 우리使命의萬全을 期하기爲하야 全力을 傾注하고 잇습니다.

回顧컨대 多幸히柳韓洋行은 斯界의熱烈한聲援파 柳韓으로써 今日파가튼 機構를築成하고 또우리社員이 其間 訓練파 經驗을 싸어 一層더우리의 初志貫徹에 熱中케되어 社會大衆의 深甚한理解와 支持가잇슴을 따라서 此際가 가장奮戰할時機임을 自覺하고 今後 더욱 우리의目的을爲하야 邁進하려고합니다.

諸賢! 오즉 正當한見地에서 深甚한理解를바라는바이며 더욱 絕大支援을、다시바라고 곳으로 永年의 愛顧를 不惜하신 醫藥界諸先生에게 삼가 滿腔의 謝意를表하야 마지안는바입니다

柳韓洋行 直入輸關係諸會社

米國 아봇트、스큅제비스、데피디-S・R・(인손)・W・D・(칼엔드로)・(日바디비파)가

獨逸 치로、메르크、파스토-릭、

佛蘭西 반스、아

英國 렌、힌부레

瑞典 부벡、도리

株式會社 柳韓洋行 外國藥品直輸入商

京城・大連・上海・臺北

京仁線素砂驛前 柳韓洋行製藥實驗研究所

經=濟=話=題

物價高問題

內閣更迭과 今後

1 金弘鎭

[illegible]

昂騰의 程度

[illegible]

昭和四年平均	一九八、七九	
同 五年平均	一六八、五六	
同 六年平均	一六四、四一	
同 七年平均	一七〇、二九	
同 八年平均	一八〇、五五	
同 九年平均	一八〇、九六	
同 十年平均	一八四、一五	
同十一年平均	一八六、五四	

(備考) 昭和三、四年不均...

	英 國	米 國
十一年四月四日	一四三	一六八
同 十月廿日	一四九	一七七
同 十一月末	一六四	一九一
十二年...	一八二	二〇八
同 四月五日	二〇二	二二八

[illegible]

近衛內閣財經策

馬場財政復活?

結城財政이 延長되드래도

急進政策緩和豫想

[illegible]

新內閣歡迎 株式界好感

[illegible]

朝石拂込徵收

八月二日十二圓五十錢

[illegible]

春繭資金金利

錢四厘—五厘로据置

[illegible]

財界瑣信

[illegible]

慢然弱氣不可

當分上勢持續?

[illegible]

府內各銀行—

上期業績順調

配當모두据置豫想

[illegible]

石油粉糾解決

[illegible]

朝鮮產綿布

海外進出旺盛

五月中만 九百萬碼

[illegible]

仁川在米減少

[illegible]

商議總會의 木浦、川興提案

[illegible]

東銀大刷新의

根本策講究

他行과의 合併이 아니면 自體對策을樹立?

[illegible]

根本治療必要

公森朝銀副總裁談

[illegible]

株式引受策等 高壓手段考慮

[illegible]

市川專務引退

[illegible]

時勢와 市況

株式

上放後 反落

[illegible]

前場昂騰

[illegible]

後場低弛

[illegible]

吏進强調

藏相後任待

[illegible]

今日의市況

六月二日

株式 (單位十圓)	前日比較	今日比較
正米 (三等單位)		
期米		
商品		

[illegible]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實物前場買賣價

[illegible]

國債 昂進

實物漸增

[illegible]

期米 頭重

强調나

前場好勢

[illegible]

益康 仁川 京城 金益康 商事

八月限의大勢

[illegible]

全羅鑛業

[illegible]

主要事業會社株便覽

[illegible]

後場小甘

[illegible]

近衛內閣歡迎

[illegible]

米豆餘墨

[illegible]

各限保合

[illegible]

正米 定期高로 昂騰

京城强調

堂島綿場情報

仁川反撥

大邱底堅

釜山昂騰

木浦小康

群山堅調

[illegible]

內外金銀時勢

〔六月二日〕

海外金銀 (一日)

倫敦金塊一온스 七磅九片

對英電信相場 一志二片十六分十五

紐育銀塊時勢 十四圓六十一錢一厘

倫敦銀塊時勢 二十片四分一

紐育銀塊時勢 四十四仙八分七

東京金銀

京城金銀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大阪砂糖

日本銀行勢

朝鮮銀行勢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造絹

日本表紙

橫濱生絲

京城綿絲布

京城正米時勢

大阪短期取引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鮮取引所

大阪長期取引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地方正米時勢

大阪正米市況

仁川正米時勢

日本內地各地正米

大阪市中正米

[illegible]